

기고



김용호 화순소방서장

다셨나요? 화재감지기, 우리집 화재 예방은 당신 몫입니다.

봄비가 여러 번 내리고 날이 따뜻해지면서 벚꽃이 만개하는 3월 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농사 준비가 시작되며 추위에 움츠렸던 야외 활동도 시작된다. 이렇듯 봄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시작하고 계획하는 계절이다. 2021년 신축년을 시작하는 봄, 우리집 화재예방을 위해 무언가를 계획해보는건 어떨까?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감지기)을 설치하는 일이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안전에 대해 자격을 갖춘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관리를 수행하도록 해온 반면, 일반주택은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2년 2월 5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주택에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신규 주택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기존 주택은 5년간 유예 기간을 두어 2017년 2월 4일까지 세대별, 층별로 적은 소화기 1개 이상과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기존 주택의 경우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가구가 많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주로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화순에서는 2020년 10월에 집에서 전을 부치다 화재가 발생해 이를 소화기로 효과적으로 진압하여 화재가 확대되지 않는 등 화재는 우리 생활에 항상 도사리고 있다. 화재감지기는 단독경보형감지기도고 하며 말 그대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경보음을 울려 화재사실을 알리는 기구이며, 단독경보라는 말은 외부 전원공급이나 화재수신기와는 연동 없이 단독으로 경보한다는 뜻이다. 설치방법 또한 간단하다. 천장에 나사로 고정 장치를 부착하고 몸체를 연결하면 끝이다. 배터리 또한 10년 정도로 가까운 대형마트, 소방기구 판매점, 인터넷 등에서 만원 이하로 구입이 가능하며, 소화기 또한 2만원 전후로 구입이 가능하다. 적은 돈을 활용해 최적의 가성비로 우리집이 소방서가 되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다.

“주택용 소방시설이 뭐야? 우리 집에도 설치해야 하는 거야?” 등 막연한 생소함의 문제라던지, “실마 우리 집에 불이 나겠어?”와 같은 안전 불감증은 이제는 버려야 한다. 감지기 하나가 나의 가족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소화기 하나가 나의 보금자리를 지켜 줄 수 있다. 최고의 가성비를 가진 주택용 소방시설을 활용한 우리 집 화재예방을 위한 결정은 당신의 몫입니다.

기고

위조지폐 불빛에 비추면 알수 있다

가히 신용카드 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용카드 사용이 대중화 보편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현금 대신 카드 사용을 선호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실생활에서는 현금사용처도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최근 경상도 지역 전통시장 21곳에서 위조지폐가 발견되었다. 장보러 온 사람들이 물리는 혼잡한 틈에 그것도 위조지폐 식별이 익숙하지 않은 상인들에게 건네는 지폐를 자세히 들여다 볼수 없는 새벽시간대에 과일과 채소등을 구입하는 척하며 5만원권 위조지폐를 건네며 거스름돈을 되돌려받는 수법의 위조지폐 사범이 경찰에 검거되면서 가족이나 생계가 어려운 영세상인을 울린 사건이 발생한다.

폐 식별법을 직접 실습해 보았으면 한다. 일단 5만원 지폐에 대한 위조지폐 여부 판별을 위해서는 일단 불빛에 비추어 보았을 때 숨어있는 신사임당 그림이 있는지 살펴본 후 지폐를 기울여 보았을 때 각도에 따라 신사임당 숨은그림 왼쪽에 있는 띠형 홀로그램에 우리나라 지도, 태극, 4괘 무늬가 번갈아 나타나는지도 확인해 보면 알수 있다. 또한 신사임당 숨은그림 우측 띠형 홀로그램에 태극무늬가 나타나는지도 살펴보면 최소한 위폐에 의한 피해는 막을수 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1만원권은 불빛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세종대왕 숨은그림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지폐를 기울여 보았을 때 각도에 따라 세종대왕 숨은그림 오른쪽 사각형 홀로그램에 우리나라 지도, 숫자 10000, 4괘 무늬가 번갈아 나타나는지 섬세히 살펴보면 위폐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1만원권 위조지폐는 컬러복사기로 복사할 경우 지폐 우측 끝부분에 은색선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한눈에 위폐임을 알수 도 있을 것이다. 범죄는 예방만이 최선의 방책인 만큼 상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지폐에 대해 위폐여부는 확인해 보는 습관을 들여야 할것이며 만약 위조로 의심되는 지폐를 발견하였다면 이후 절대 만지지 말고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속히 신고해주길 당부드린다. 김덕형/장성경찰서정보안보외사과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화하는 사기 범죄 앞서 진화해야 한다.

최근 사기 범죄는 시대나 이슈의 흐름에 따라 점점 진화하고 있다. 이전 보이스피싱을 보면 종종 어눌한 말투로 듣는 이로 하여금 '혹시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생각날 수 있게 하였으며, 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이를 흉내 낸 이후 대중적으로 알려진 바가 있다. 광고성 전화, 보이스피싱 전화, 저금리 대출 문자들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또 다시 진화하고 있는 사기범죄는 뭐가 있을까? 얼마전 '딥페이크'의 순기능과 악기능을 설명한 방송을 접하게 됐다.

'딥페이크'는 고도의 자동화 프로그램이나 인공지능이 스스로 자기학습을 통해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여 사진 또는 동영상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것의 좋은 예로 독립운동가인 유관순 열사, 안중근 의사 등의 사진을 복원시켜 만들어낸 영상 등이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범죄에 이용된다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이런 유용한 '딥페이크' 사람의 얼굴을 복원, 합성, 변형시켜 불법 영상에 사용되거나 사기 범죄 등에 이용되고 있다.

어디선가 노출된 자신의 얼굴이 성 착취물, 불법 영상 등에 합성되어 돌아다니고, 모르는 사람에게 연락이 와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으며 돈을 갈취당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얼굴을 합성해 찍은 영상을 문자로 보내며 "급한 일이 있으니 돈 좀 보내줘"라며 가족을 속이는 경우도 있다. 지금까지 겪어본 사기 범죄와는 많이 다르게 느껴질 것이고 방심하면 내가 영상 속 인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진화하는 범죄를 막기 위

해서는 새로운 범죄 수법을 듣거나 접하면 주변에 가장 먼저 알리자. 특히, 고령자의 경우 알고도 당하는 경우가 많으니 핸드폰에 '후후' 등 스캠 전화번호를 차단해주는 어플을 설치해 놓자. 또한 '경찰청' 블로그, 밴드, 카카오톡 등 새로운 사기 수법이나 사기 범죄 관련 이슈, 정보들이 업데이트되고 있으니 이를 공유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 과학기술 발전으로 도처에 있는 인공지능 기술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 수법, 정보, 예방법 등을 모두가 함께 공유하며 범죄를 진화(鎮火)하길 간절히 기대해본다. 박은유/순천경찰서경무계경장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 213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장평 13길 19 (061) 727-3123 서율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